

國產鷄 개량 위한

집념의 생애



구슬은 진흙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도 뚫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국산계 개량을 위하여 한평생을 보내었고 남은 여생도 오로지 국산계 개량에 바치기로한 집념의 양계인에 한국의 노벨상인 삼일문화상(근로부문)이 주어진다.

빛도 없이 이름없이 갓은 어려움을 참고 묵묵히 종계개량에만 전념하는 의지의 양계인을 우리사회에서 더이상 모른다고 할수는 없었으리라.

우리 양계인이면 너무도 잘 아는 한협가금육종 농장의 박도현 시장이 금년도 영예의 삼일문화상 근로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본지는 이미 독자들과 약속한대로 휘경동에 있는 한협빌딩 3층 집무실로 찾아갔다.

삼일문화상(근로부문) 수상자

박도현시장과 함께

기자: 먼저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양계대상(양계협회제정)이나 농수산부 장관 표창장등 그간 큰 상을 많이 타셨지만 그것은 양계분야의 대상이

었고, 이번삼일문화상은 지금까지 문화 예술과 학술부문에 주로 주어졌고 우리 양계분야와는 거리가 먼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수상으로 양계업자의 사회적지위가 높



아진것 같습니다.

한협과 박사장님은 사업면에서는 우리 업계에 너무 잘 알려졌으므로(한국양계에도 소개)그간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것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수상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박 : 당초 이런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심사위원들(위원장 유달영)께서 국산계 개량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셔서 수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자 : 박사장님은 성격이 다른사람과는 달리 약간 특이 하신면을 지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 예 성격이라고 할까 제 취미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사색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좀 별난 성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남들이 즐기는 오락은 단 한가지도 해본적도 없고 할줄도 모릅니다. 바둑 장기는 물론 화투나 당구 어떤 종류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나면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것이 취미입니다.

기자 :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깊이 사색하시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 신것 같습니다. 미국에 태어나셨으면 발명왕 에디슨 같이 되실뻔 하였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다르게 연구심이 강하신것 같은데 양계를 하시기 이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박 : 국민학교는 효제국민학교(종로5가)를 다녔고 그후 협성실업 상과를 다녔읍니다.

선린상업 1회 졸업인 부친의 병환으로 삼촌이 학비를 대주었으나 아버님 병환이 점점 깊어져 15세부터 각종잡화와 쌀 연탄장사를 했습니다.

기자 : 재산을 모으게 되것은 언제 부터인사요?

박 : 그후 1925년 현 동신부화장 자리로 옮겨와 조그맣게 도정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참이 적기때문에 항상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벼 품종에 따라 도정하면 도정율이 크게 개선 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남보다 약 2%의 쌀 을 증산하여 다른 도정공장 과 경쟁에서 이겼지요.

보리도정도 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도정공장을 직접 설계 하였고 압맥 공장도 자작으로 기계를 개조하여 당 당시 동진정미소 상표가 붙은 보리쌀과 압맥은 품질면에서 특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것 과 경쟁이 되지 않았읍니다.

기자 : 무엇이든지 끝을 보고야마는 집념과 연구심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그 외에 당 당시 연구 개발한것은 없읍니까?

박 : 당시 전국에서 소위 산업스파이를 보내서 동진정미소를 몰래와 볼 정도였지요.

병자년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당시 만주에서 চাল기장(迷子)을 갖어 왔는데 그때 기술로 도정을 아무도 못했는데 연구개발에 성공했읍니다. 이때 양곡을 한번에 30~40화차씩 구매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였고 정부양곡 도정도 하였읍니다.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도정 공장을 하루쉬면 서울 시민의 식량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초상을 치를 정도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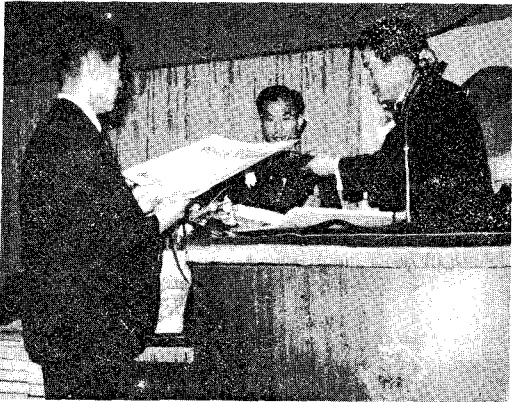
이렇게 되자, 심지어는 중량교로 밤에 논얼마를 가져오라는 등 유괴하겠다는등 협박 편지나 전화도 무수히 받기도 한웃지못 할 일도 많았읍니다.

기자 : 그때 닭육종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셨군요.

박 : 당시 시간이 나면 연구에 몰두해서 잉크 비누 벗집을 이용한 펄프 염료등을 직접 만들어 썼고 밤에는 책을 보고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을 공업연구소에



가서 물어보고 하여 첼피가족에 바르는 에나멜(락카)을 제조하였고(부산피난지에서 성공)최고급 화장품인 분도 만들었습니다. 분은 미세하게 분쇄하는 것이 어려운데 코티분처럼 고급품 제조에 성공했고 방수제 개발과 당시 경방에서 나오는 기름물은 솜을 재생하는등 손을 댄것은 모두 성공하고야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제1차 미주양계시찰을 마치고(김원복, 이필용씨 등과 함께)

말았는데 그때 쓰다남은 솜이 지금까지 농장에서 단열재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결국 그러한 집념이 국산계를 개발하게 하였군요. 잘 모르는 분은 고집으로도 표현합니다만 사장님의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는 아무도 국산계 개량에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박: 감별계 원로이신 김영석(金寧錫)씨를 만나 양계를 하게 되고 당시 외국계가(상품계)가 수입되기전 품종이 좋아야 하겠다는 소신과 남보다 특이성을 가져야 사업에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종계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기자: 국산계 개량에 대한 사장님의 집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 시장이 좁아 사업성은 없습니다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것을 한가지 남겨놓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합니다.

최근 새로운 육종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면 지금 양상이 크게 달라 졌을 것입니다. 인공수정의 성공과 정액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새로운 기술 개발로 문제점은 해결되고 머지 않아 새로 개량된 닭이 보급될 것입니다.

기자: 정말 끝을 보고야 마는 집념에는 탄복할 뿐입니다.

연구와 사색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이제 종계개량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닭이 나오게 됩니까?

박: 외국계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질병의 도입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란계로 대란성의 127호 육계로는 603호(산란성 최고)에 이어 607호에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609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네스 북에 오를 정도의 세계 정상 수준에 필적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료시장에 맞는 갈색산란계도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당시 동신 종축장에 들렀다가 사장님이 새양복을 입으신것을 보고 놀라 직원에게 물어보니 캐나다 여행 떠나신다는



국산중계의 육종개량사업을 정착시키고 양계협회장립과 육성에 공헌한 박도현 사장이 대한양계협회 제1회 양계산업대상을 받고 있다.

말을 듣고 웃은적이 있는데 지금도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1년에 양복은 몇벌이나 새로 맞추시지요?

박: 밖에 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무슨 새 양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우기 요즘에 와서는 양복을 입을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는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알기로는 줄담배를 피우시고 그 담배곽은 퍼서 메모지로 사용하셨는데?

박: 지금은 담배를 많이 피우지 못합니다. 담배갑은 버릴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요.

기자: 국산계 개량을 하며 한때 회사 운영까지도 어려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

박: 2번 거의 파산 일 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모든 재산 포기하고 파난가면서 재산에 미련 갖지 않는 철학을 배웠고, 상황 판단을 빨리하여 미련을 버리고 단념할것은 단념해야하는것 배웠습니다.

기자: 종계개량외에 보람을 느끼시는 일은?

박: 양계협회의 창립회원으로 당시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신념과 오직 개인의 이해

관계를 떠나 업계발전을 위한 이념으로 일해서 어느분야보다도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져 기술보급등 다른분야에 모범이 되었던 것이 자랑과 보람을 느낍니다.

또 서울사료(주)를 만들어 당시 설립 취지를 다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뜻을 일부나마 이루어 나가는데 만족합니다.

의리도덕이 존중되는 우리업체가 되어 우리의 후손에게도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사업을 물려줄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끝으로 슬하에 자녀는 몇분이나 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많아서 예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도 가실수 있을 정도라는 주위의 부러움까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 아들셋 딸 여섯과 24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처음으로 웃으신다)

기자: 장시간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업체 발전을 위하여 큰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